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편...청년층 우려는 여전

28년만에 구조 전환...올해부터 보험료율 0.5P씩 인상
소득대체를 상향·지급 보장 법 명시 등 다양한 보완책
“돈만 내고 못받는 거 아냐”...연금 재정 고갈 불안 확산

“월급도 빠듯한데 국민연금 보험료가 또 오르면 제값 부담은 클 수밖에 없죠. ‘100세 시대’인 마당에 30년 뒤 퇴직 시점에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광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임인선(여·31·북구 일곡동)씨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불신감을 드러냈다.
광주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자취하고 있는 김건희(29·동구 지산동)씨 역시 “월급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액수를 떠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 고정 지출이 늘어나면 심리적 압박도 커진다”면서 “특히 제도 지속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크다. 달라진 연금제도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과 정부 차원의 제도적 안전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과 연금 확대를 동시에 담은 올해 새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지만 당장 부담을 떠안게 되는 청년 세대의 우려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청년들은 연금 재정·고갈에 대한 불안 해소와 ‘연금=노후 안정’이라는 공식을 확실히 만든 정부 차원의 제도적 안정 장치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8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은 ‘더 걷고 더 주는’ 구조로 전환된다. 보험료율은 현행 소득의 9%에서 9.5%로 0.5p 인상된다. 월 소득 100만원 기준 납부액은 월 9만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1998년 이후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이다.

인상 폭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임금 상승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이 느끼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료 인상과 급여 확대를 동시에 담은 제도 변화지만 당장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늘어나는 청년층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특히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이 큰 지역 청년들에게 연금 보험료 인상은 또 하나의 고정비 증가로 인식되고 있다.
연금공단은 청년 세대가 ‘내기만 하는 구조’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급여 확대를 동시에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평균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낼 경우 연금 소득대체율은 43%로 높아진다. 월 소득 300만원 기준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129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다.
다만 청년층은 이 같은 수치가 ‘멀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장기간 가입이 전제된 계산 방식 자체가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놓인 청년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연금공단은 출산과 병역 이행에 대한 크레딧 확대도 청년 세대를 겨냥한 보완책으로 제시하고 있

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 12개월을 인정하고 기존 50개월 상한을 폐지했다. 군복무 크레딧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월 소득 8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하지만 미혼 단독가구가 많은 청년층 입장에선 이 같은 보완 대책을 제감할 대상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반면 고령층을 위한 제도 개선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제감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대상자 중 올 6월부터 근로소득이 월 519만원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감액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고령층 13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청년층은 SNS 등을 통해 “고령층의 근로 유인은 필요하지만 부담은 청년이 더 지는 구조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하는 등 세대 간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청년들의 연금 고갈 우려 등에 대해 “기금 운용 성과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361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148조원 이상 증가했고 수익률은 11.31%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누적 수익률 역시 6.82%로 매우 안정적이라는 입장이다.
공단은 또 기금 고갈에 따른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개혁안에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라는 문구로 지급 보장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담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급여 확대와 크레딧 제도,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며 “국민 모두가 국민연금에 제때 가입해 연금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사라진 3%대 은행 주담대...이번주 0.15%P 더 오른다

금리 상단 6%대 중반까지 치솟아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문구를 삭제하며 사실상 ‘인하 사이클 종료’를 시사한 이후 시장금리가 뛰고 대출금리도 뜰썩고 있다.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6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130~6.297%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5일(연 4.120~6.200%)과 비교해 한달 열흘 사이 하단이 0.010%포인트(p), 상단이 0.097%p 높아졌다. 혼합형 금리 상단의 경우 지난해 11월 중순께 약 2년 만에 처음 6%대를 넘어선 뒤 불과 2개월여만에 6%대 중반까지 더 오른

상태다.
반대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연 3.760~5.640%)는 같은 기간 다소 떨어졌다. 주요 지표금리인 코픽스(COPIX)가 0.320%p나 오른 것과 대조적으로 은행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 폭을 줄였거나 우대금리를 늘린 것으로 해석된다.
하단인 3.760%는 신한은행의 최저 금리로, 나머지 3개 은행의 최저 금리는 4.070~4.340% 수준이다.
다만 금리 세부 내역을 보면 신한은행의 경우 카드 등 계열사 이용 실적 등과 연동된 일반적 우대금리와 별개로 서울시금고 운영 은행으로서 서울시 모범납세자에게 0.5%p의 금리를 깎아준다.
신한은행 변동금리 하단(3.760%)에는 대상자가 극소수인 이 우대금리가 반영된 만큼 사실상 대

부분의 금융소비자가 현재 4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3%대 금리는 기대하기 어려운 셈이다.
은행권은 대출 금리 상승세가 당분간 크게 꺾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의결문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삭제하자 시장의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본격 금리 상승기 진입’ 기대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당장 KB국민은행은 1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추가·혼합형 금리를 지표 금리인 5년물 금융채 금리의 최근 상승 폭인 0.15%p만큼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
시장금리를 주 단위로 반영하는 우리은행 등도 시장금리 상승분을 이번 주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속속 반영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



박문호 ‘자연과학 세상’ 이사장 초청 AI 강연

광주경총 금요조찬 포럼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지난 16일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금요조찬 포럼에 인공지능(AI) 전문가 박문호 박사를 초청해 미래 경영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광주경총은 AI 도입과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글로벌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AI 네이티브’ 조직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AI 전문가를 초청했다.

박문호 ‘박문호의 자연과학 세상’ 이사장은 이날 강단에 올라 AI 시대에 조직 문화 재설계, 리더의 경영 능력 등에 대해 강연했다.
박 이사장은 특히 전국 중소 제조기업 61만개의 제조 공정 AI 도입률은 1%로 중기부 인공지능 전환(AX) 전략(2030년까지 10% 목표)을 위해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총은 국내 최장수 조찬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 경제단체로 저명인사와 전문가 등을 초빙해 지역 노사민정 등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조찬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



양평 최영창 농가 직원이 ‘미송화 버섯’을 살펴보고 있다.

<이마트 광주점 제공>

이마트 산지 직송 설 선물세트 ‘오더투홈’ 상품군 확대

다음달 20일까지 최대 30% 할인
이마트가 설 명절을 앞두고 산지 직송 서비스를 활용한 ‘오더투홈’ 설 선물세트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이마트는 “오는 2월 20일까지 오더투홈 설 선물세트를 최대 30% 할인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더투홈은 이마트가 지난해 4월 론칭한 이마트 앱 기반 산지 직송 서비스로,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산지에서 바로 배송함으로써 신선도를 높이고 바이어가 직접 선별해 품질 신뢰성도 고려

했다.
오더투홈 서비스 론칭 후 매월 48%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추석 기간에는 매출이 평월 대비 97% 증가하기도 했다.
이번 설 선물세트 대표 상품으로는 청년농부 100인에 선정된 양평지역 최영창 농가의 ‘미송화 버섯세트’를 비롯해, 김해 산지에서 공수한 ‘산지 암소 한우 1호’, 음성에서 직송한 ‘한우 금바구니 세트’ 등이 있다.
이 밖에 7년근 산양삼으로 구성된 ‘산양삼세트’와 ‘더덕품은 건강버섯 세트’, 완도에서 배송하는

‘황제전복세트’도 준비했다.
이마트는 올해 오더투홈 상품군을 200여종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오더투홈 선물세트는 이마트 앱을 통해 주문할 수 있다.
변재민 이마트 채소 바이어는 “수확 직후 출고되는 높은 신선도에 이마트 바이어가 보증하는 품질에 대한 신뢰도까지 더한 ‘오더투홈’ 산지직송 서비스가 꾸준히 확대 중이다”며 “이번 설에는 지역 명물을 활용한 차별화된 산지 직송 선물세트를 대폭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20대 고용률 5년 만에 하락·3년 연속 취업자도 줄어 ‘더블 마이너스’

‘쉬었음’ 7.1%...집계 이후 최고
20대 고용률이 5년 만에 하락했다. 20대는 3년 연속 취업자도 감소했으며, 작년에 고용률까지 낮아져 더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8일 국가데이터저(옛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작년 20대 취업자 수는 344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7만명 감소했다. 이로써 20대 취업자 수는 3년 연속 줄었다.
감소 폭은 2023년 8만2000명이었는데, 2024년 12만4000명을 기록했고 작년에 더 커졌다. 2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든 원인 중 하나로 인구 감소가

꼽힌다. 이 연령대 인구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줄었다.
최근에는 인구 외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20대 인구는 전년보다 3.5% 줄었는데 취업자 감소율은 4.7%로 더 컸다. 만 15세 이상 인구 중 특정 시점에 취업한 이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에서도 이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20대 고용률은 60.2%로 2024년보다 0.8%포인트(p) 떨어졌다. 20대 고용률이 전년도보다 낮아진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은 2020년에 이어 5년 만이다.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 중 하나인 ‘쉬었

음’에 해당하는 20대는 지난해 40만8000명을 기록해 2020년 41만5000명을 기록한 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 20대 인구 중 쉬었음의 비율은 7.1%로 2003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다. 30대는 지난해 쉬었음이 30만9000명을 기록해 2003년 이후 최저였다.
실업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쉬었음이 젊은 층에서 확산하는 이유는 작년 8월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30대는 32.0%가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있다’고 답했고 27.3%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쉬고 있다’고 답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 로또복권 (제 1207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0	22	24	27	38	45	11
등위			당첨금(원)			당첨지수
1	6개 숫자일치		1,733,202,949			17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7,101,648			86
3	5개 숫자일치		1,459,359			3,365
4	4개 숫자일치		50,000			168,020
5	3개 숫자일치		5,000			2,756,042